



보도시점 2026. 6. 19.(금) 11:00

배포 2026. 6. 19.(금) 09:00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확대

-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 이마트, 롯데마트 순차 공급
- 7월까지 2,112만 개 수입하고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 개 이상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 등을 통해 동네빵집, 슈퍼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급·판매한다.

또한,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6월→12월)하고, 적용물량도 확대할(4천톤→8천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하였다.

6월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 개로 평년보다 1.2% 증가하였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증가하여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6월 7,879만 수로 평년 대비 4.6%,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고, 병아리가 성장하여 계란 생산에 참여하면서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 개로 전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회복되면서 7월 이후 계란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 지원사업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등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 ▶ 6월 사육 마릿수
: (평년) 7,533만 수, ('25) 7,772 → ('26p) 7,879(평년비 4.6%↑, 전년비 0.4%↑)
- ▶ 6월 일일 생산량
: (평년) 4,648만 개, ('25) 4,865 → ('26p) 4,705(평년비 1.2%↑, 전년비 3.3%↓)
- ▶ 일일 계란생산량 전망
: (7월) 4,900만 개(전년비 0.3↓) → (8) 4,952(1.4↑)→ (9) 5,000(0.8↑)
- ▶ 계란 산지가격(원/30구, XL^{특란})
: (5월중) 5,923 → (5.하) 6,055 → (6.상) 6,208 → (6.중p) 6,263(평년비 24.1%↑, 전년비 8.5%↑)
- ▶ 계란 소매가격(원/30구, XL^{특란})
: (5월중) 7,419 → (5.하) 7,516 → (6.상) 7,483→ (6.중p) 7,506(평년비 9.3%↑, 전년비 7.1%↑)

| | | | | |
|-------|----------------|-----|-----|--------------------|
| 담당 부서 |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문원탁 (044-201-2331)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춘규 (044-201-2344) |